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1)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 (2)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 (3)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 (4)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하소서 아멘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리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8월 22일(수) 기도 담당 : 신의순 집사

2018년 8월 21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3장 다 같 이
기 도 서원석 집사
성 경 봉 독 시 34:1-6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기도자의 감사 찬송 』 이요한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시편 34편 1-6절 >

-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8월 21일(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생명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풀의 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힘겹고 지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주시니 넉넉히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를 밝히 비추며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소망 중에 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 받는 새문안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중이신 담임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깊은 묵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치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새성전 건축과 영장리 추모관 건립에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도 채워주옵소서. 8월 말까지 이어지는 교육부의 여름 사역에도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다스림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가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경제와 외교, 안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고통 받는 저 북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 속히 억압과 압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온 가족들을 주의 강한 손과 편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